

몸의 왜곡을 통한 혼성모방

임 은 혁[†]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의상학과

Pastiche in Fashion by Bodily Deformation

Eun-Hyuk Yim[†]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접수일(2008년 1월 25일), 수정일(1차 : 2008년 4월 8일, 완료일 : 2009년 1월 22일), 게재확정일(2009년 3월 20일)

Abstract

Freed from its traditional confinement to the human body, postmodernism in fashion exposes the defectiveness of body and abstracts from the body under. Deformation of the body denotes the break away from the idealized and standardized body for mass productions. It tends to experiment with extreme exaggeration in form, refusing to subscribe to the traditional values that build on the balance and symmetry of the body. Bodily deformation carried out historical and cultural pastiche opposes the sartorial convention and symbolism which results in the discord between signifiant and signifié of clothing. As a type of intimate architecture, fashion always mediates the dialogue between clothes and body, or fashion and figure. My study suggests a framework to analyze bodily deformation as pastiche,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othes and the body. In order to inquire the deformation of the body in fashion, my study examines subjects of the fashion collections of the turn of the 21st century, using the method of literature research and content analysis.

Key words: Body, Deformation, Pastiche, Representation; 몸, 왜곡, 혼성모방, 재현

I. 서 론

19세기까지의 서구 복식은 복식과 몸 사이에서 조형 기능을 담당하는 내부 구조인 속옷을 끌어들이 새로운 조형작업을 수행해왔다. 이는 자유로운 조형을 이룩해내고, 표면장식을 복잡하게 중대시켰다. 그러나 20세기를 경계로 하여 복식이 획일적인 조형으로 수렴된 이전 시대와는 달리, 20세기의 예술이 자기표현이 되어갔던 것처럼, 복식에서도 몸 자체가 강력한 표현성을 갖게 되었다.

20세기에 접어들어 복식과 몸의 관계는 두드러진 변화를 겪게 되었다. 1차 대전을 겪으면서 여성의 사

회진출이 불가피해졌으며, 이에 따라 여성의 복식도 근대 남성복에서 나타난 민주화, 대중화 그리고 획일화의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특히 여성복이 코르셋을 생략하고 기능성을 추구함에 따라 여성의 인체미에 관한 시각은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이어 2차 대전을 지나 본격적으로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구미의 경제확장과 더불어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여성의 역할이 변화하게 되고, 더불어 이루어진 기성복의 발달에 의해 여성복에서 외형상의 성별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여성복에서 코르셋이 사라지면서 복식에서 다채로운 양상이 전개되었다. 코르셋으로 교정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몸이 구가하면서 ‘신체 재발견의 시대’(후카이, 2005)가 도래하였다. 허리를 지점(支點)으로 하는 제도원칙을 무너뜨리지 못했던 19세기 복식과 비교하

[†]Corresponding author
E-mail: chyim@skku.edu

여, 코르셋을 떨쳐버린 20세기의 복식은 전에 없는 조형적 자유를 획득했다고 할 수 있다.

예술에서 몸은 모더니즘의 도래 전까지 오랫동안 사실주의적 재현의 대상으로 간주되었으나, 모더니즘 시대에 이르자 매체가 곧 작품의 주제가 되었던 탓에 몸의 존재는 유리되고 유명무실해졌으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는 미술의 형상성의 회복과 정체성 상실의 자각으로 몸은 새롭게 여러 각도에서 등장하게 된다. 패션에서도 새로운 아젠다가 출현하여 몸의 변형과 확장의 가능성을 탐구하였는데, 이는 기준에서 이탈한 것으로, 복식은 어떠한 미지의 보편적 실재나 특정한 패션계에 자주 등장하는 가상의 '몸'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오늘날의 소비사회에서 디자이너들은 더 이상 성에 근거한 다양미가 아닌, 몸 자체의 변형과 해체를 거친 후 재구성되는 다양한 인체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복식에서의 다양한 몸의 표현은 혼성모방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흔히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이라 일컫는 1980년대 이후의 컬렉션에서는 특정 시대나 특정 문화의 복식의 특징을 혼성모방하여 유희적으로 표현한 예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주체가 사라져 독창적 또는 창조적 스타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서는, 복식에서의 몸의 표현에서도 과거의 스타일이나 타문화의 스타일을 그 의미와 무관하게 차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본 논문에서는 변화하는 복식과 몸의 관계와 몸에 대한 미의식을 규명하기 위해, 복식에서의 몸의 왜곡과 혼성모방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복식에 표현된 몸의 왜곡에 관한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현대복식에 혼성모방의 방식으로 표현된 몸의 왜곡의 유형과 미적 가치를 고찰하고자 한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몸의 왜곡을 통한 혼성모방을 고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한다. 복식은 독자적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시대나 문화, 개인이나 집단에 따른 몸에 대한 미의식의 반영은 복식의 형태를 결정하므로(김민자, 2004), 복식의 연구는 사회학과 예술문화사와 연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첫째, 복식과 몸에 관한 개념을 문헌을 통해 고찰하여 복식과 몸을 보는 시각을 사회학적 관점

과 미학적 관점에서 이해하여 파악하고, 이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복식에 나타난 몸의 왜곡과 혼성모방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행한다. 둘째, 복식에 표현된 몸의 왜곡을 통한 혼성모방이 현대 복식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실제 작품을 사례로 들어 분석하는 연구를 병행한다. 연구의 범위로 설정한 시점은 21세기 전환기의 여성복 패션이며, 복식사를 통한 문헌연구와 함께 패션 및 복식사 관련 서적, 오트 쿠튀르와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지와 패션잡지에서 얻은 여성복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사례들을 내용 분석하는 사례연구를 병행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몸의 왜곡

시각적 패턴에 의한 몸의 재현은 모든 디자이너가 부딪치는 형태 문제의 하나이다. 재현은 모델 대상과 그 이미지 사이의 비교를 수반한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기계적인 정확한 복사(複寫)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 때 복식에서는 몸의 형태의 정확한 재현에서 벗어나는 비재현적인 특징이 발생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패턴이 눈에 보이기로 된 패턴과 거의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강한 긴장감이 유발된다. 우리의 주의력은 전체의 맥락과 구별되는 혹은 다른 부분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아른하임, 1954/1982), 복식에서도 형태의 왜곡이나 형태 전환, 또는 부정형을 통해, 신체적 특징을 드러내는 복식형태에서 멀어질수록 긴장감을 더하게 된다.

왜곡은 모든 예술에서, 표현된 상이 실제의 대상과는 다른 차이를 말한다. 왜곡은 추상과 마찬가지로 메시지를 강조하는데 사용되는데, 현대 미술에서 왜곡은 무엇보다도 표현적인 목적을 위해 주로 사용되어 왔다. 다른 특징에 비해 강조되거나 과장되어 어떤 표현적 특징을 부각시키는데 이용되는 왜곡된 부분은 엄밀한 사실성과는 거리가 있어 오히려 돋보이게 된다. 허버트 리드(Herbert Read)는 왜곡을 자연계에 본래적으로 주어진 비례를 무시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안연희, 1999). 흔히, 보는 이의 기억 속에 담겨있는 사물에 대한 '정상적'인 이미지와 왜곡된 이미지 사이에는 심미적 긴장감이나 연상을 통한 특별한 감정이 유발된다.

역사적으로 예술에 나타난 몸의 왜곡(歪曲, distortion)과 변형(變形, deformation)현상은 인체를 좀 더 이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상들은 대상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규범적인 것을 부정하고 일상적인 맥락에서 이탈하여 변형하거나 분열 혹은 분절시키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허정선, 금기숙, 2004). 대상의 있는 그대로의 재현이 아닌 의도적 왜곡을 통한 주관적 표현에서 나타나는 몸의 비재현적 경향은 물질분명에 대한 거부, 인간성 상실 등의 사회개념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인간의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구조보다는 인간의 존재나 본질에 대한 사고가 등장하고, 미술사조보다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을 강하게 드러내며 작가의 독특한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이호진, 2000).

복식에서는 대량생산되는 획일화된 의복의 대상이 되는 규격화된 틀로서의 몸의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몸의 이상미에서 이탈하는 경향들을 통해, 정확하고 기술적인 재단기법과 구성방법을 통해 기존의 복식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왔던 신체에 정확히 일치되는 조화로운 의상에 대한 전통적인 미학적 가치를 거부하고 극도로 과장된 조형적 양상으로 표현되었음을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가치체계에서 추구하던 인체의 균형미, 대칭성과 명료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동감과 극단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변형을 가시화하는 방법으로써 균형체계의 파괴와 확대와 과장의 이미지로 변형되거나, 비정형적인 형태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복식은 더 이상 제2의 피부가 아니라, 기발한 방법을 통해 이상적인 몸에 가까운 실루엣에서 이탈하며, 인간의 중심에서 발산하는 본능적인 형태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다. 이러한 경향은 몸부위의 확대와 축소를 통한 몸의 왜곡, 몸의 파편화와 재구성 등의 방식으로 몸의 부위나 몸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의도된 복식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몸의 사실성이 부재하는 복식에서는 더 이상 복식 부분의 형태의 강조와 인체의 각 부위가 나타내는 상징성은 일치하지 않게 되며, 오히려 복식과 몸과의 관계가 모호하게 표현되거나 은유적 또는 유희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혼성모방

예술은 현실을 재현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인간 정신의 세계를 외부 대상으로 반영하였다. 그러나 사

진술의 발명은 예술로부터 현실 재현의 역할을 빼앗았고 독창적이고 유일무이했던 예술작품의 권위는 대량복제가 가능하게 되면서 예술작품을 감싸고 있는 카리스마적인 아우라(aura)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독창적이고 유일무이하며 대체할 수 없는 예술작품이 위기에 처하면서 그것을 창조해내던 작가 역시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작품에서 저자의 죽음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다시 꺼내어 조합하는 혼성모방으로 이어지게 한다(아피그나네시, 개럿, 1995/1996).

패션에서도 이러한 독보적인 저자(author), 즉 디자이너의 위치는 해체되었고, 디자인의 영감은 지금까지 무시해오던 영역으로부터 얻어지기 시작하였다. 하이패션은 과거의 복식이나 타 문화의 영역으로부터 그 이미지를 차용, 복제하여 새롭게 조합하면서 더 이상 패션의 경향은 하이패션에서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디자이너는 끊임없이 주위를 둘러보아야 할 상황이 되었다.

다시 말해, 주체가 사라진 포스트모던한 시대에는 스타일이라는 것도 의미를 잃는다. 독창적, 창조적 스타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 패러디가 도달한 결말이 혼성모방이라고 했을 때, 혼성모방은 어떤 원칙이나 개념 없이 과거의 모든 스타일을 자기 입맛에 맞게 짜 맞추기도 하고 끼워 넣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과거라는 시간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시간이며, 거대한 역사적인 줄기 속에서의 어느 한 시점인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이미지 가운데 어느 한 조각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도 단지 실재하지 않는 이미지의 한 부분이라고 여기게 되며, 또한 이는 타문화에서의 이미지의 차용에도 적용된다. 뚜렷한 기준이나 확실한 중심이 없어진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서는 원본을 가진 패러디가 가능할 수 없게 되므로 그 대신 혼성모방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현대 복식에서 특히, 흔히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이라 일컫는 1980년대 이후의 패션컬렉션에서는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문화의 복식의 특징을 혼성모방하여 유희적으로 표현한 예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복식은 과거 복식을 재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인간의 몸의 형태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패션이 특정한 스타일을 반복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과거 스타일의 재출현은 전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맥락에서 등장하므로 현재의 완전히

새로운 표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혼성모방을 통한 몸의 왜곡은 특정한 복식이 특정한 인체부위를 상징하는 전통적인 기표와 기의의 관계에 있어, 각 복식의 부분은 해당하는 인체 부위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특정한 복식 부분의 형태의 왜곡은 그 인체 부위에 대한 왜곡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III. 몸의 왜곡을 통한 혼성모방

1980년대 이후의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서는 몸을 왜곡하거나 변형하여 정형화되지 않은 몸을 기형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존재해왔는데, 이러한 신체적 이탈을 통한 불안감과 공포감은 복식의 조형적인 형태를 통해 기존 이미지에 대한 거부와 해체를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서승미, 2004). 이는 형태의 왜곡이 즉각적으로 우리의 주의를 끌고 감흥을 일으키는 것을 이용한 것이며, 사실적 요소들을 과감히 확대하거나 축소시키는 몸의 왜곡을 통해 일상적인 대상을 의외의 방식으로 해석한 것으로, 관찰자는 전형적인 형태에 관한 시각적 정확성에서의 이탈에 대해 자극을 받게 된다. 이는 몸의 특정 부위를 인위적으로 확대,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스케일의 변형을 통한 몸의 이상미에 대한 미적 인식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스케일링(scaling)을 통해 크기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작업의 의도는 복식과 몸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기 위함보다는, 몸의 전통적인 현존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복식과 연관된 흔적을 허구적으로 창조함으로써 근대적 합리주의를 배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형태의 왜곡을 통한 혼성모방의 예를 몸 부위의 시대적 혼성모방과 문화적 혼성모방으로 구분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

1. 몸의 왜곡을 통한 혼성모방의 유형

1) 시대적 혼성모방

현대 패션에서 목 부위에 대한 변형의 예에서는 대표적으로 17세기의 리프칼라가 이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는 2000년 F/W 콤팩트 가르송 컬렉션에서 큰 리프 칼라를 풍성한 벌집 모양의 얇은 폴리에스테르 오건디(Organdy)소재를 겹쳐 표현하여 소재의 특성과 매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었다(그림 1). 이 의상에서 칼라 안에 착용자의 머리가 잠김으로써 연장의 감각이 전달되면서, 머리와 목과 어깨의 전통적인 관계는 일소되었다.

한편, 가슴은 여성의 가장 명백한 제2의 성적 특질로서 주요한 신체적 조작의 장소가 되어왔다. 19세기 후반에는 가슴을 강조하기 위해 고무와 캔버스 소재의 공기주머니의 기술이 적용되었다. <그림 2>의 광고에 나타난 압축공기를 넣은 가슴의 형태는 패션에 미용 과학을 적용하는 초기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빅터 & 롤프(Viktor & Rolf)는 이러한 노모부즘 실루엣의 현대적인 응용에 착안하여, <그림 3>의 1998년 컬렉션의 턱시도 앙상블에서 구름 또는 풍선 등을 연상케 하는 가슴에 대한 혼한 은유를 제시하였다(Koda, 2001). 뾰뚱한 흰 셔츠는 부풀어 올라 모델의 머리를 삼킬 듯한데, 이 앙상블의 과장된 확대는 가슴을 부풀리려는 장치에 대한 혼성화적인 재현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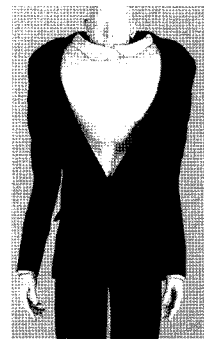
<그림 1>

Junya Watanabe, 2000년 F/W
(Visions of the body 2005, p. 53)



<그림 2>

Henderson & Henderson,
'Pneumatic Bust Forms' 광고
(Extreme beauty, p. 20)



<그림 3>

Viktor & Rolf, 1998년 F/W
(Extreme beauty, p. 15)

19세기까지 서구 복식은 복식과 몸 사이의 조형 기능을 담당하는 내부 구조인 속옷을 끌어들이 새로운 조형을 추구했다. 20세기에 접어들어 복식과 몸의 관계는 두드러진 변화를 겪게 되면서, 몸 자체가 강력한 표현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의 한 예로, 몸의 형태화의 기능을 통해 이상미에 근접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했던 속옷이 겉으로 드러나는 복식을 들 수 있다. 속옷의 겉옷화는 이미 지각하고 있는 경험적 이미지를 뒤엎어 ‘낯섦’과 ‘신비감’ 등의 효과를 나타내며, 평소에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사물의 이면을 드러내 양면적 기능성을 제시한다. 즉, 복식의 내부 구조로서 몸의 조형성을 변경하여 이상적인 몸의 형태에 가깝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속옷이 겉옷으로 전환되어 혼성화되면서 몸을 왜곡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코르셋을 들 수 있다.

20세기 후반 패션에서 코르셋은 미래를 위한 이미지를 재창조하기 위해, 모순된 몸에 대한 공포와 욕망을 창의적으로 그리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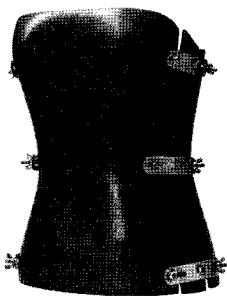
단련된 몸(hard body)이 코르셋을 대체하였다면, 코르셋 자체는 패션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 예를 들어, 상처 받거나 공격 받기 쉬운 몸을 상징하는 코르셋 디자인이 있다.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은 신체적 손상이나 선천성 기형의 불온한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Surgical’ 코르셋을 만들어냈다. 또한 살라얀은 몸과 복식을 기술적인 관점에서 조망하여 혁신적인 접근을 하였는데, <그림 4>의 코르셋은 앞뒤와 양 옆의 네 개의 나무 판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금속 볼트로 연결하여 착용하면 나무 바디스가 피부부를 구속하여 금속 볼트가 몸속으로 조여 들어오게

하였다. 억압적이면서도 표현적인 복식의 개념을 탐구하는 살라얀의 뷔스티에는 18세기 코르셋의 단단함과 신체 억압을 상상하게 한다. 많은 디자이너들이 이상적인 형태를 재현하기 위한 섹시한 코르셋을 만드는데 반해, 살라얀은 상처 받고 연약한 몸의 개념을 암시하는 코르셋을 디자인하였다.

코르셋 외에도, 브래지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경위를 발견할 수 있다. 2차 대전 직후에는 총알의 끝 부분의 모양을 한 브래지어 컵이 유행하였는데, <그림 5>에서 보듯이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는 1984년 컬렉션에서 그와 비슷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가슴에 관한 풍자적 형태는 고티에의 유머러스한 의도와 패러디에 대한 충동을 드러낸다. 고티에의 드레스는 가슴의 구조에 대한 분석적인 시각뿐 아니라 유희적인 성적 자극을 이용한 디자인으로, 원뿔형의 구조는 몸에 대한 해부학적 관심뿐 아니라 1950년대의 취향을 반영하는 스타일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다.

허리 아래의 부위에 관해서는, 복식의 긴 역사를 통해 존재해 온 복식과 몸 사이의 빈 공간(void)과 관련이 깊다. 대표적인 예로 버슬과 크리놀린은 스커트에 볼륨을 더했으며 효과적으로 착용자를 소재와 틀에 의한 빈 공간으로 예워쌌다.

역사적인 의상에 대해 철저히 연구하는 디자이너인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는 과거의 유물을 그대로 재현하기 보다는 형태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적인 기술을 적용하는 편이다. <그림 6>의 버슬 앙상블은 단단하게 패딩된 쿠션으로 뒷부분을 지지하고 있다. 힙라인의 만화적인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 의상을 입고 모델이 런웨이에서 움직이



<그림 4>

Chalayan, 1995년 F/W
(Fashion: A History from the 18th to the 20th Century, p. 686)



<그림 5>

Gaultier, 1984년 F/W
(Extreme Beauty, p. 61)



<그림 6>

Westwood, 1994년 F/W
(Fashion Designers, p. 204)

는 모습은 놀랍게도 에로틱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웨스트우드도 1985년 접을 수 있는 후프를 이용하여 종 모양의 스커트인 'mini-crini'를 선보였다. 당시에는 입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의상이라고 공격을 받았지만, 2년 안에 라크르와와 퍼프 스커트와 같은 무수한 버블 스커트들의 선구가 되었다.

2) 문화적 혼성모방

과거 서양 복식뿐 아니라, 제3세계의 민속복의 특징을 함께 혼성모방한 경우도 찾아볼 수 있는데,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는 디올(Dior) 컬렉션에서 재킷 밑단에 패드를 넣어 전통적인 쿠튀르 기술을 구사하였다. 이는 이상적인 신체상을 추구하여 몸을 최대한 구속함으로써 형태를 만드는 서양 복식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나타낸 것으로, 이와 함께 착용된 35단으로 이루어진 은색 고리의 초커(choker)는 긴 목을 만들기 위해 금속 고리를 착용하는 버마의 파다웅(Padaung)족 여인들의 관습을 연상케 한다(그림 7). 이 의상은 역사적 의상과 민속적인 의상에서 영감을 받아 조합하여 현대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목과 어깨 사이의 공간에서 시각적으로 아래로 이동하여, 어깨 자체를 수평적으로 확장한 예를 살펴보면, 허리 등 다른 몸 부위를 축소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8>의 알렉산더 맥퀸(Alexsander McQueen)의 2005년 컬렉션에서는, 미식축구 선수 복장을 연상시키는 헬멧을 함께 착용한 단단한 구조의 넓은 어깨의 상의에 몸에 달라붙는 반바지를 결합하여, 상대적으로 어깨 부분을 강조하여 전체적으로 역삼각형의 실루엣을 만들어내었다. 또한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의 라탄

(rattan) 소재의 의상은 일본 전통의상인 가미시모를 응용하였다. <그림 9>에서 보듯이 미야케는 옷칠한 대나무 틀 구조와 플리츠가 잡힌 광택 있는 의상의 앙상블로 사무라이에서 받은 영감을 표현하였다. 넓은 어깨가 나타나는 대부분의 민속 의상에서는 패턴 조각들이 구체적인 형태를 띠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으나, 넓은 날개가 달린 접퍼인 가미시모라는 일본 남성의 공식적인 복장은 어깨위로 접힌 패턴을 취하며 바지같이 생긴 팻뿔한 오버스커트인 하카마와 같이 입게 된다(Koda에서 재인용, 2001). 결과적으로 이 의상은 일상적인 기모노의 둥근 어깨와 대조를 이루어 남성적인 웅대함을 강조하였다.

2. 몸의 왜곡을 통한 혼성모방에 나타난 미적 가치

20세기에 접어들어 복식에서 몸 자체가 강력한 표현성을 갖게 되면서 복식과 몸의 관계는 두드러진 변화를 겪게 되었다. 복식이 몸의 형태와 움직임에 집중하고 착용자의 복식에 대한 신체적 인식을 전달하는데 주력하면서, 복식에서 몸의 사실성이 사라지는 경향이 큰 조류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는 몸의 왜곡으로 나타났다. 몸의 왜곡은 특정한 복식 부분의 형태의 왜곡을 통해 나타났고, 이는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문화의 복식의 특징을 혼성모방하여 유희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서 고찰한 몸의 왜곡을 통한 혼성모방의 미적 가치는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é)의 해체와 미의식의 전환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의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서는 몸을 왜곡하거나 변형하여 정형화되지 않은 몸을 기형적



<그림 7>
Dior Couture, 1997년 F/W
(Extreme Beauty, p.15)



<그림 8>
McQueen, 2005년 S/S



<그림 9>
Miyake, 1992년 S/S
(Extreme Beauty, p. 48)

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존재해왔다. 이는 몸에 대한 비재현적인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으로 탈의미화와 탈상징화를 통해 원래의 미적 가치에서 떨어진 혼성모방을 통해 유희성, 모호성, 은유성을 제시하면서, 복식에서 전통적인 기표와 기의가 부합되지 않고 해체되는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복식사를 통해 과잉계일로부터 뉴 룩에 이르기까지 몸 부위를 과장하는 예는 무수히 많으며, 이러한 예들은 이상미에 도달하기 위해 과장의 방법을 통해 몸을 재현하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복식에 나타나는 몸의 왜곡은 그것이 역사적 의상에 대한 혼성모방이든 문화적 혼성모방이든, 비재현적인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의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의 1880년대의 버슬을 연상시키는 드레스는 버슬의 디테일을 유희적인 혼성모방으로 재해석했다. 사진작가 닉 나이트(Nick Knight)의 사진은 야마모토의 의상과 닭의 옆모습과의 유사성을 보여준다. 사진에서 오리너구리 모양의 실루엣으로 보이는 모자는 실제로는 챙이 달린 야구모자이고, 앵클부츠의 실루엣은 옥스포드 슈즈로 만들어진 것이며, 거대하게 늘어뜨린 버슬 스커트로 나타난 것은 합성섬유의 오간자 퍼프로 만들어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야마모토의 버슬은 1880년대의 버슬이 가지는 힘의 과장으로 인한 다산의 상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닉 나이트의 사진에 나타나는 야마모토의 디자인은 닭의 모양과 유사한 형상을 통해 한 마리의 새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다시 말해, 조형적으로는 버슬과 비슷한 형태의 왜곡이라 할 수 있으나, 탈의미화와 탈상징화를 통해 원래의 버슬의 미적 가치에서 떨어진 혼성모방이라 볼 수 있다.



<그림 10> Yamamoto, 1986년 F/W
(Extreme Beauty, p. 135)

속옷에 의한 복식과 몸 사이의 조형작업이 이루어진 19세기까지의 복식과 비교했을 때, 현대 복식에서의 몸의 왜곡은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여성미의 상징과 의미를 재현하기 위해 사실적인 몸의 형태에서 벗어난 복식이라고 볼 수 없다. 여성의 역할 변화에 따라 복식에서 외형상의 성별차이를 드러내지 않아도 됨에 따라, 오히려 복식에서 전통적인 기표와 기의가 해체됨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체적 일탈을 피한 디자인에서는 복식과 몸의 경계는 희미해지고 몸에 대한 의식의 한계의 확장을 통해 몸에 대한 이상미에 대한 미적 인식이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의식의 전환을 내포하는 형태 왜곡의 조형적 특징의 비교는 코르셋을 예로 설명할 수 있다. 복식사에서 해부학적 구속으로 나타나는 코르셋은 특히 19세기 동안에 몸의 과장된 변형을 연출하였다. 코르셋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속옷으로서 복식의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로, 복식의 하부 구조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차 대전 후 뉴 룩이 등장하면서 아웃 쿼터에서 자수와 비즈로 장식된 코르셋이 겉옷으로 입혀져 드레스의 외형적인 요소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부터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서 실험적인 디자이너들은 전통적인 코르셋에 대한 기괴한 패러디를 창조하여 신체적 손상이나 선천성 기형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코르셋을 창조하였는데, 이는 20세기 후반 패션에서의 모순된 몸에 대한 공포와 욕망을 창의적으로 그리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술에 나타난 신체의 유기적 동일은 대상에 대한 지식에 의해서만 재구성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만큼 허용될 수 있는냐는 그 시대의 표현양식에 의한다(아른하임에서 재인용, 1954/1982). 복식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시대의 보편적인 표현양식을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이 다른 시대에 재현할 경우는 하나의 특수한 디자인으로서 별개의 개념으로 인식된다. 인간의 몸의 형태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복식이 특정한 스타일을 반복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과거 스타일의 재출현은 전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맥락에서 등장하므로 완전히 새로운 표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IV. 요약 및 결론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이라 일컫는 1980년대 이후의

컬렉션에서는 몸 자체의 변형과 해체를 거친 후 재구성되는 다양한 인체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특정 시대나 특정 문화의 복식의 특징을 혼성모방하여 유희적으로 표현한 예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는 역사 복식이나 타문화의 복식을 차용하는 방식을 통하여, 몸의 특정 부위를 인위적으로 확대,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스케일의 변형을 통해 복식과 몸의 관계에 있어 기표와 기의가 해체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몸의 이상미에 대한 미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대량생산되는 의복의 대상이 되는 규격화된 틀로서의 몸의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전통적인 몸에 대한 이상미에서 이탈하는 경향들을 통해, 몸의 사실성이 부재하는 복식에서는 더 이상 복식 부분의 형태의 강조와 인체의 각 부위가 나타내는 상징성은 일치하지 않게 되며, 오히려 복식과 몸과의 관계가 모호하게 표현되거나 은유적 또는 유희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각 복식의 부분은 해당하는 신체부위를 상징한다는 전통적인 복식개념과 비교했을 때, 현대 복식에서의 몸의 왜곡은 시대적·문화적으로 요구되는 여성미의 상징과 의미를 재현하기 위해 사실적인 몸의 형태에서 벗어난 복식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혼성모방을 통한 탈의미화와 탈상징화에 의해 원래의 미적 가치에서 떨어져 복식에서 전통적인 기표와 기의가 부합되지 않고 해체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아이디어 중심의 디자인들은 일상적이고, 기능적이고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요건에서 해방되어, 시장성 보다는 순수하게 미적이고 개념적인 형태를 취한다. 현대 패션디자이너

들이 복식과 몸, 패션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 점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이러한 이미지 중심의 의상들을 통해 관찰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주로 일본, 영국과 벨기에에서 등장하고 있는 많은 도발적인 과장을 통해 디자이너의 미적 개념이 투사된다. 이러한 맥락의 패션은 직접적인 상업성과 거리가 멀고 때로는 난해한 개념을 강조하나, 부분적으로는 현대 패션의 표현적인 본질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민자. (2004). *복식미학강의 2*. 서울: 교문사.
- 서승미. (2004). *현대 예술의상에 표현된 조형성의 텍스트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아피그나네시, 리처드. & 개럿, 크리스. (1995). *포스트모더니즘*. 이소영 역 (1996). 서울: 이두.
- 아른하임, 루돌프. (1954).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역 (1982). 서울: 홍성사.
- 안연희(편). (1999). *현대미술사전*. 서울: 미진사.
- 이효진. (2000). 세기말 서양 복식에 표현된 Deformation에 관한 연구. *복식*, 50(3), 13-30.
- 허정선, 금기숙. (2004). 패션아트에 나타난 몸의 왜곡과 변형에 관한 연구. *복식*, 54(3), 145-158.
- 후카이, 아키코. (2005). *신체의 꿈 Visions of the body 2005*. 서울: 서울시립미술관.
- Fukai, A. (2002). *Fashion: A history from the 18th to the 20th century*. Köln: Taschen.
- Golbin, P. (2001). *Fashion designers*. New York: Watson-Guptill Publications.
- Koda, H. (2001). *Extreme beauty: The body transformed*.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